

## 커피 한잔

윤 제 철(시인)

햇살 좋은 베란다에서  
한 잔의 커피는  
달팽이 기어가듯 느릿하게  
커피 잔 그림자를 흘리며

일상의 부딪침으로 망가져  
좁아진 시야를 넓혀주거나  
닫아버린 감각의 문을 열어주고  
뒤도 안보고 사라진다

좋다 나쁘다 말은 많아도  
싫은 내색하지 않고  
연락 없이도 만나주는 친구  
변덕스런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

---

커피 잔 그림자를 보며 떠올린 시다. 마치 달팽이처럼 느릿했다. 그렇게 천천히 맛으로 취하는 커피를 노래한다. 좁아진 시야를 넓히고 닫아버린 감각을 열어주고 두말 않고 사라진다. 그리고 건강에 좋으니 나쁘니 해도 개의치 않고 언제나 만나주는 친구다. 어디 이런 친구가 있는가, 나를 커피 예찬을 펼치게 한다.

## 어느 두 여성의 선행

김 병 헌(수필가)

나는 문학공부를 위하여 일주일에 2번씩 왕십리역으로 지난다. 집이 수유동이기 때문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에서 내려서 왕십리방향 2호선으로 갈아탄다. 오늘은 일찍 수업을 마치고 초과진료를 받기위하여 4호선 미아 사거리 역에서 내렸다. 삼양동사거리에 단골치과위원을 가기 위해서는 마을버스로 갈아 타야 한다. 삼양동사거리에 다 오는데 비가 내리는 것이었다.

내 앞에 소녀가 먼저내리고 내가 내리는데 여성이 내 앞에 와서 “우산 안 가져 오셨어요?” 하고 묻는다. “가방 속에 가지고 왔어요.” 가방이 잘 열리지 않자 직접 내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준다. 이렇게 친절한 여성이 어디에 있겠는가? 만약 내가 우산을 안 가지고 왔다면 자기가 쓰던 우산을 나에게 주고 가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나오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여성에게 학교와 반 이름 등을 물어보지 못하고 말았다. 알지도 못 하는 사람에게 누가 그러한 친절을 베풀겠는가!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여성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고 헤어진 게 너무나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사복을 입었기에 고등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여성으로 표기하였다.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다. 퇴근시간 무렵으로 왕십리 전철역 승강장 앞에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었다. 나는 맨 뒷자리에 서 있었다. 그런데 맨 앞자리에 서 있었던 회사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내 자리에 오더니 “승차 하시기에 불편하실 터이니 제 앞자리와 바꾸어 서시지요.” 하는 것이었다. 처음 보는 여성이었다. 싫다고 사양을 하였다. 그러나 그 여성은 개의치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가기를 권하였다. 할 수 없이 나는 앞자리로 나갔을 때 열차가 들어 왔다.

나는 앞자리에서 그 여성은 맨 뒷자리에서 순서대로 승차하였다, 나는 열차 내에서 회사원 여성을 찾아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였다. 참으로 요즈음 보기 드문 여성으로 칭찬할 만한 여성이다. 누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겠는가! 그러니 우리나라의 앞날이 보인다. 이렇게 어른들을 모시고 앞자리를 젊은이들이 양보하는 것은 앞날이 있다는 것이다

나 자신이 젊은 시절에 전철 속에서도, 버스 안에서나, 어른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양보와 친절을 한 번도 안 해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나이가 들어 이런 대접을 받고 보니 후회스럽기 짝이 없었다.

한 가지 서운한 것은 남자들은 별로 양보를 하지 않는다. 전철에서나 버스 안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 여성들이 양보를 하지 남성들은 먼 곳을 바라보며 못 본채하고 있다. 남자들도 여성들처럼 먼저 양보하고 어른들을 모실 줄 알았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렇지가 못하였다.

나는 우산을 펼쳐준 소녀나 전철 문 앞자리를 양보해 준 회사원 여성이나 다 같이 훌륭한 인품과 도덕성을 가진 여성이라고 본다. 앞으로 이 두 여성들과 같이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예절바른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면 이 사회는 더욱더 밝아질 것이다.

나는 이 두 여성들의 호의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남성들도 용감하게 웃어른이나 나보다 나약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고 마음을 넉넉히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면 이 사회는 더욱 밝아질 것이며 세계에서 일등 가는 국민이 될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